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84)(11/6/2021)

제 2 권 내면의 삶에 관한 권면들

제 12 장 거룩한 십자가라는 왕도, 13-15 절

행 5:41 -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시 44:22 -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행 14:22 -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13.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있다면(행 5:41), 장차 당신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겠으며,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덕을 세우고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칭송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위하여 더 심하게 고통 받는 것도 잘 참고 견딘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조금” 고난을 받는 것은 합당합니다.

14.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시 44:22).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을수록, 그 만큼 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그리스도를 위하여 역경을 받지 않는다면, 하늘에 속한 이들을 깨닫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열납될 수 있는 것은 없고,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 더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많은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쪽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도 있고, 모든 성인들을 더 많이 본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육신적인 쾌락들과 위로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들과 환난들을 더 많이 질 때, 지금 여기에서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있고, 장차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만일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낫고 유익한 어떤 것이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말씀과 모범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분명하게 권면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 9:23). 그러므로 모든 것을 찬찬히 다 읽고 세밀하게 살폈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행 14:22).

**말씀과 해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행 14:22)라고 말한 바울은 그 말대로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면서 사역하였다. 골 1:24 -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고난을 피하거나 벗어나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담담히 짊어진 사람이었다. 바울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자신의 고난을 받아들였을까?

(1)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생각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받으신 고난이 부족했고, 더 받으셔야 했다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 받으셔야 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다. 본문에서 말하는 “남은 고난”은 주님께서 구원을 위해 받으셔야 했던 고난이 있듯이, 바울 자신도 복음 사역을 위해 받아야 되는 고난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깨달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나에게 나 자신이 져야 하는 “남은 고난”이 있다.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다양한 “남은 고난”이 있다. 지금 우리 자신에게 남아 있는 고난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가?

(2) 바울이 받아들인 고난은 목적이 있는 고난이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24 절). 아울러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받았다. 골 1:25 -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구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바울은 26 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이라고 표현했다. 골 1:26 -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골 1:27 -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결국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 바울의 고난은 숭고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비록 고난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만,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근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우리가 각기 맡은 직분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만약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섬긴다면 그 섬김은 문제가 있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성도들은 매일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온전히 죽지 못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전히 나올 수 없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나오지 않고 나의 옛 사람의 기질과 성품이 계속 나를 주도한다면,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도 없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도 없으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로 잘 섬기는 것 이전에 나 자신의 옛 사람의 본성을 철저히 죽이는 것이는 선행되어야 한다.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하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외적인 선행을 행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선함이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외적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다스리고 제어하는 영적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서의 영성훈련의 본질적 모습이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내 안에서부터 근본적인 영성형성이 늘 새롭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 놓으며 고쳐 나가기 위해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노력하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담히 받아들이며 잘 견디어 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자.

####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가 주님을 위해 감내해야 하는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 독재정권 하에 인권을 유린당하고, 종교적인 박해를 받는 세계 곳곳에 성령이 바람이 불게 하시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며 영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3.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속히 주의 말씀이 전해지며,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주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